

진도군 홍보 웹드라마 '여가 진도여' 인기

부자 사랑 그린 가족 드라마
씻김굿·세방낙조 등 담겨
문화·관광 홍보효과 특출



진도군이 제작한 웹 드라마 '여가 진도여'의 한 장면. <진도군 제공>

진도군이 지역 우수 관광자원을 알리고자 준비한 이색적 홍보 마케팅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진도토요민속공연 등 천혜의 문화·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홍보 웹드라마를 제작해 이달 초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토티 등을 통해 인터넷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웹 드라마 '여가 진도여'는 모든 분량이 진도에서 촬영됐으며 세방낙조, 삼별초 테마공원과 진도대교, 진도향토문화회관 등이 담겼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토요민속공연 등을 통해 진

도 토속 민요를 비롯해 씻김굿과 진도복놀이 등을 담아냈다.

진북과 흥주 등 지역 특산품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등 독특한 지역 문화 자원과

진도만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잠시나마 복잡한 세상에서 진도 관광자원과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면서 기쁨과 즐

거움, 여유를 만끽하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2분 분량으로 제작됐다.

웹 드라마는 홀로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인생을 즐겨볼까 했더니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진도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한 아버지와 자식 간 아쉬움, 애뜻함, 사랑이 담긴 가족 이야기이다.

이 드라마는 유튜브,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창에서 '여가 진도여'를 입력하면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주연으로 중견 연극배우 장기용씨가 아버지 역할을 맡았으며 신인배우 오유선과 이도호씨 등이 출연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진도군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웹 드라마를 통해 진도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튜브, 페이스북 등 모바일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진도군 전복양식 어업인 기술보급 교육

고수온 대비 양식어가 가두리 차광막 등 자재 지원도

진도군이 맞춤형 전복양식 사육 관리 기술 보급 교육과 자재 지원에 나서며 등 전복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전복양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업인 교육이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 대학의실에서 열렸다.

고품질 전복생산을 위해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전복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육 관리 기술보급 교육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에 전복 어업인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의 박사를 초빙해 전복양식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전복양식 사육관리 기술

보급 교육을 실시해 수산소득 5000억원 달성에 기여했다.

이와함께 군은 가두리 차광막 등 양식어가 자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여름철 고수온을 대비해 5000만원 을 들여 전복 가두리 차광막 등 필요 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지난달 체결한 후 '전복폐사 원인규명과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피해 최소화과 진도군 전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업인 교육 기회 확대 등 수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고품질 전복생산을 위한 양식어업인 교육이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 대학의실에서 열렸다. <진도군 제공>

해남군 청년 노동자 월 5만원 교통비 지급

중소기업 재직 15~34세

해남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육전, 화전 등 해남지역 산업단지 출퇴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남군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지난 15일부터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형태로 교통비를 매월 지급한다.

대상자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15~34세 국내 청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청년 노동자로부터 일괄 신청서를 받아 해남군청 지역개발과 투자유치팀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rsunh1207@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청년 교통비 부담을 덜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청년층 고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제2진도대교 내달 17일까지 통행 통제

익산관리청 포장·보수공사 1진도대교 양방향 통행 전환

해남군과 진도군을 연결하는 제2진도대교가 포장·보수공사를 위해 오는 7월17일까지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기간 제2진도대교의 통행을 통제하는 대신, 제1진도대교를 일방향 통행에서 양방향 통행으로 전환해 우회도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2진도대교를 이용해 진도군으로 진입하던 차량은 제1진도대교를 이

용해 통행하고, 해남 방면 차량은 제1진도대교의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익산청국토관리청은 공사기간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차량 속도 저감시설 설치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등을 통해 통행차량의 안전을 확보 후 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제2진도대교 보수공사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공사 기간 중분히 서행해 안전운전을 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다시마 수확철을 맞은 완도 평일도 전역이 다시마 건조장으로 변했다. 완도 금일읍 도장항과 도장마을에 펼쳐져 있는 다시마 건조장. <완도군 제공>

완도 평일도 전역 다시마 건조장 변신

수확 작업 한창...작황 좋아 올 3500t 생산 전망

"전국 최대 최고품질의 완도 다시마를 아시나요?"

19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초매식을 시작으로 다시마 수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주산지인 완도 평일도 전역이 다시마를 내다 팔리는 건조장으로 변신해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완도 금일수협은 올해 다시마는 14일 기준 1848t, 143억3200만원의 위판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총 3049t, 222억9900만원의 다시마 위판이 이뤄졌다.

위판 가격은 지난해 kg당 평균 7600원 선을 웃도는 8400원-85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최고가는 지난 12일 kg당 1만 1500원에 이르고도 있다.

군은 올해 2131여가 2361ha에서 다시마 양식을 했으며 이달 말까지 수확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보다 작황이 좋아 약 3500t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36년째 농심에서는 국민라면인 '너구리' 생산을 위해 완도산 다시마를 구매하고 있으며 올해도 400t을 구매해 총 1만4000여t에 달하는 다시마를 꾸준히 구매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오랫동안 완도산 다시마가 농심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정직한 바다에서 어민들이 정성스레 키운 다시마의 품질을 인정받기 때문"이라며 "완도 어민들과의 상생 약속을 지켜가는 농심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다시마 추출액 함유 '바다음료' 내달 출시

전남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다시마 추출액과 알긴산이 함유된 최초의 '바다음료'가 다음 달 나온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센터장 임영태)는 최근 aT센터에서 '해조류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글로벌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해조류 개발 제품인 '구미당김 젤리', '하루면역 AMPM'과 '알

긴그레이트(석류, 유자)' 등이 소개됐다.

특히 알긴그레이트 음료는 다시마 추출액과 알긴산이 함유된 최초의 바다음료로 지역 특산자원인 석류와 유자 등 두 가지 맛으로 개발됐다. 이들 음료는 다음 달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전남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세계 최고의 천혜 어자원을 가진 전남의 해양 특화 연구센터로 '바다가 미래다!'란 슬로건 아래 신해양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완도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확대 추진

완도군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전산화 사업은 도로를 기반으로 땅속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위치와 속성 정보를 1000분의 1 수치지형도에 전자

지도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총 6억6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노화읍 도시지역 도로 22km, 상수도 24km, 하수도 25.93km 등 총 71.93km를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2층주택, 전체 수리했습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텃밭(10평)있음
- 시세 - ~~약 1000만원~~
사정상 싸게 팝니다. - 일시불 6400만원
- H. 010-6834-7400

